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성희롱 발언 미셸 위 "몸서리 처질만큼 화 난다"

팟캐스트 '워룸'에 출연해 팬티 언급

미셸 위

"내 앞에서 웃으며 경기력을 칭찬하고선 뒤로는 팬티 운운하다니…. 몸서리가 처진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으로부터 공개적인 성희롱 발언을 들은 골퍼 미셸 위 웨스트(32)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미셸 위로서는 자신의 표현대로 '몸서리가 처질만큼' 화가 날법한 몰상식한 발언 탓이다.

미셸 위는 21일(한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 공인이 팟캐스트에서 나의 팬티를 언급한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는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 사람이 그날 기억했어야 할 것은 내가 64타를 쳐 모든 남자 골퍼들을 물리치고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가 내 얼굴에 미소를 짓고 경기력을 칭찬하더니 뒤로는 하루 종일 나를 객관화하고 팬티를 언급했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처진다"고 재차 강한 분노를 나타낸 뒤 "논의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엘리트 경기력이지 옷이나 외모가 아니다"라면서 "당시 퍼팅 자세는 퍼팅 성공 확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스커트를 올려보라는 초대장이 아니었다"고 일침을 놓았다. 2014년은 미셸 위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일명 'ㄱ자 퍼팅'을 할 때다.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스티브 배넌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워룸'에 출연해 자신의 팬티를 언급하는 등 성희롱을 한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줄리아니 전 시장은 7년 전 한 자선모금 골프행사에서 미셸 위와 동반 라운드한 사실을 떠올리며 "허리를 잔뜩 구부려 팬티가 보이는 미셸 위의 퍼팅 자세 때문에 파파라치들이 너무 많이 따라다녀 미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줄리아니는 발언 직후 자신의 말이 적절치 않았음을 직감한 듯 곧바로 "이 같은 농담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한 발 뺐지만, 그의 발언은 마땅히 비난받아야하는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2014년 US여자오픈 우승 등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5승을 거둔 미셸 위는 미국 하와이주 출신으로 한국 이름 위성미를 갖고 있는 재미교포다. 2019년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프런트 임원인 조니 웨스트와 결혼한 뒤 지난해 6월 첫 딸을 낳았고,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는 출산 후에도 현역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피해자 박철우는 모든 걸 걸고 폭로했는데…

가해자 이상열 감독, 희한한 '셀프 징계'

비겁한 선택…팬들 여론 나빠지자 잔여시즌 6경기 '자진포기' 선언
배구협회·연맹 매뉴얼 마련 중요

KB손해보험 이상열 감독

기억을 꺼내는 자체가 고통이었지만 용기를 냈다. 자신이 쌓아온, 그리고 쌓아갈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각오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했다. 피해자의 용기에 가해자가 내놓은 답은 고작 잔여 6경기 포기였다. V리그를 넘어 사회를 뒤덮은 폭력 논란, 왜 징계 수위는 가해자가 정하는 것일까.

박철우(36·한국전력)는 18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5라운드 OK금융그룹과 원정경기 직후 이상열 KB손해보험 감독(56)을 향해 작심발언을 했다. 박철우는 12년 전 국가대표팀에서 당시 이상열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다. 17일 이 감독이 "난 (폭력) 경험자라 선수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 중이다. (중략) 어떤 일이든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박철우는 "그 기사를 보고 하루 종일 손이 떨렸다"며 "몇몇은 기절하고 몇몇은 고막이 나갔다. 그들이 내 동기고 친구다. 그게 과연 한 번의 실수인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사랑의 매도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감독은 "박철우와 소주 한 잔 하면서 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박철우는 이 감독과 코트 위에서 잠시 마주치는 것도 불편하다고 했다. 오히려 "사과 안 하셔도 된다.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박철우에게는 이 감독과 만남 자체가 2차 가해로 다가올 것이다.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20일 KB손해보험은 "이 감독이 잔여시즌 경기 지휘를 자진 포기했다"고 밝혔다. 21일 OK금융그룹전을 포함해 6경기가 남은 시점에서다. KB손해보험은 다음 시즌 이 감독의 거취는 물론 자진 포기한 올 시즌 남은 기간의 급여 지급 등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 감독에 앞서 학교폭력 전력이 드러난 송명근(28·OK금융그룹)도 잔여시즌을 '자진' 포기했다. 송명근의 경우 5라운드 막바지, 이 감독은 6라운드만을 남겨둔 시점에서였다. 징계 수위 자체도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이를 떠나 왜 가해자가 스스로의 징계를 결정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물론 대한배구협회나 한국배구연맹(KOVO)에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흥국생명은 이재영-다영 쌍둥이에게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모든 일이 해결돼야 복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품위손상 징계를 선제적으로 내린 이 같은 사례는 프로야구를 포함한 타 종목에도 여럿 있다.

박철우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명히 (내게) 안 좋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다.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면돌파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인데, 가해자는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삼각편대 77점 합작…GS, 선두 보이네

〈GS칼텍스〉

강소휘 29점·러츠 27점·이소영 21점
도로공사에 역전승…흥국생명과 3점차

GS칼텍스 강소휘(왼쪽)가 21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로공사와 홈경기 도중 상대 세터 이고은을 피해 공을 넘기고 있다. 강소휘는 이날 29점을 올리며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장충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GS칼텍스의 선두 등극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GS칼텍스는 21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도로공사와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22-25 25-20 13-25 25-22 15-10)로 이겼다. 이로써 3연승을 거둔 2위 GS칼텍스는 승점 50(17승9패) 고지를 밟으며 선두 흥국생명(승점 53·18승7패)을 추격했다. 승점 1을 보탠 도로공사(승점 37·11승15패)는 IBK기업은행(승점 36·12승14패)을 제치고 하루 만에 3위를 탈환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GS칼텍스는 강소휘(29득점)-메레타 러츠(27득점)-이소영(21득점)의 삼각편대가 나란히 20점 이상을 뽑아낸 덕분에 승리했다. 특히 강소휘는 무려 62.22%의 높은 공격성공률을 뽐내며 본궤도 진입을 알렸다. 도로공사는 켈시 페인(25득점), 박정아(22득점), 배유나(15득점)가 다양한 공격 패턴을 선보이며 맞섰지만 고비를 넘지 못했다. 블로킹에서 무려 16-4의 우위를 점하고도 40%를 밑돈 팀 공격성공률(39.21%)에 눈물을 삼켜야 했다.

중반까지 GS칼텍스의 흐름은 좋지 않았다. 특히 세트스코어 1-1로 맞선 가운데 3세트를 13-25로 어이없이 내준 게 치명타였다. 고비마다 범실로 흐름이 끊겼고, 높이에서도 도로공사에 완전히 밀린 탓이었다. 이날 GS칼텍스의 범실은 23개로 도로공사(13개)보다 10개나 많았다.

그러나 4세트에서 곧바로 분위기를 바꿨다. 17-17에서 강소휘가 퀵오픈과 오픈으로 3연속 득점을 올리는 등 한 번 잡은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22-17까지 달아났고, 24-22에서 이소영의 퀵오픈으로 승부를 5세트까지 끌고 갔다.

불안한 리드가 이어졌지만 GS칼텍스는 8-7에서 강소휘의 오픈과 상대 공격범실로 10-7로 달아났고, 곧이어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된 이현의 서브득점까지 나왔다. 11-8에선 러츠와 강소휘가 연달아 오픈으로 득점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경기를 끝낸 득점은 이소영의 몫이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프로배구 〈21일〉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흥국생명	25	18	7	53	2165	2063	1승
2	GS칼텍스	26	17	9	50	2431	2266	3승
3	도로공사	26	11	15	37	2270	2210	2패
4	IBK기업은행	26	12	14	36	2182	2250	1패
5	현대건설	26	10	16	28	2241	2382	3승
6	인삼공사	25	9	16	27	2066	2184	2패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러츠	GS칼텍스	775	①	정대영	도로공사	0.69
②	디우프	인삼공사	766	②	한송이	인삼공사	0.67
③	라자레바	IBK기업은행	764	③	배유나	도로공사	0.62
④	켈시	도로공사	646	④	양효진	현대건설	0.55
⑤	김연경	흥국생명	561	⑤	러츠	GS칼텍스	0.55

•경기결과

GS칼텍스 (17승9패)	3	22-25 25-20 13-25 25-22 15-10	2	도로공사 (11승15패)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대한항공	30	20	10	58	2867	2687	1패
2	우리카드	30	18	12	53	2654	2585	4승
3	KB손해보험	31	17	14	52	2769	2748	2패
4	OK금융그룹	31	18	13	50	2893	2898	1승
5	한국전력	30	15	15	49	2809	2758	1승
6	현대캐피탈	30	13	17	35	2638	2726	1승
7	삼성화재	30	5	25	21	2527	2755	1패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케이타	KB손해보험	978	①	신영석	한국전력	0.70
②	러셀	한국전력	765	②	김홍정	KB손해보험	0.66
③	알렉스	우리카드	764	③	박상하	삼성화재	0.64
④	펠리페	OK금융그룹	730	④	하현용	우리카드	0.61
⑤	다우디	현대캐피탈	709	⑤	최민호	현대캐피탈	0.60

•경기결과

KB손해보험 (17승14패)	2	19-25 27-25 25-18 22-25 11-15	3	OK금융그룹 (18승13패)

프로농구 〈21일〉

•2020-2021 KB국민은행 Liiv M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우리은행	30	22	8	0.733	0	1승
2	KB스타즈	29	21	8	0.724	0.5	2승
3	신한은행	29	17	12	0.586	4.5	1패
4	삼성생명	29	13	16	0.448	8.5	1승
5	하나원큐	29	10	19	0.345	11.5	4승
6	BNK 썸	30	5	25	0.167	17	9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박지수	KB스타즈	22.6	①	김진희	우리은행	5.5	① 박지수	KB스타즈	15.4
②	김단비	신한은행	18.8	②	안혜지	BNK 썸	5.4	② 박지현	우리은행	10.4
③	강이슬	하나원큐	17.9	③	신지현	하나원큐	5.0	③ 진안	BNK 썸	9.9
④	김소니아	우리은행	17.2	④	김단비	신한은행	4.9	④ 김소니아	우리은행	9.9
⑤	진안	BNK 썸	16.7	⑤	심성영	KB스타즈	4.4	⑤ 김단비	신한은행	9.2

•경기결과

BNK 썸 (5승25패)	29	13 7-16 6-13 6-8 16 10-18	29 26	55 우리은행 (22승8패)

해외축구 〈21일〉

•프리미어리그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1	맨체스터시티	24	56	17	2	5
2	맨체스터Utd.	24	46	13	4	7
3	레스터시티	24	46	14	6	4
4	첼시	25	43	12	6	7
5	웨스트햄	24	42	12	6	6
6	리버풀	25	40	11	7	7
7	에버턴	24	40	12	8	4
8	애스턴빌라	22	36	11	8	3
9	토트넘	23	36	10	7	6
10	아스널	24	34	10	10	4
11	울버햄튼	25	33	9	10	6
12	리즈	24	32	10	12	2
13	사우스햄튼	24	30	8	10	6
14	크리스탈팰리스	24	29	8	11	5
15	번리	25	28	7	11	7
16	브라이튼	24	26	5	8	11
17	뉴캐슬	24	25	7	13	4
18	풀럼	25	22	4	11	10
19	웨스트브롬위치	25	14	2	15	8
20	셰필드Utd.	25	11	3	20	2

득점

	선수	팀	득점
①	살라	리버풀	17
②	페르난데스	맨체스터Utd.	14
③	손흥민	토트넘	13
③	칼버트-르윈	에버턴	13
③	케인	토트넘	13
⑥	바디	레스터시티	12
⑥	벰포드	리즈	12
⑧	군도간	맨체스터시티	11
⑨	왓킨스	애스턴빌라	10
⑨	윌슨	뉴캐슬	10
⑪	자하	크리스탈팰리스	9
⑫	라차제트	아스널	8
⑫	레쉬포드	맨체스터Utd.	8
⑫	바네스	레스터시티	8
⑫	수첵	웨스트햄	8
⑫	스털링	맨체스터시티	8
⑫	아우바메양	아스널	8
⑫	잉스	사우스햄튼	8
⑲	마네	리버풀	7
⑲	매디슨	레스터시티	7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번리	0 - 0	웨스트브롬위치	
에버턴	2 - 0	리버풀	
풀럼	1 - 0	셰필드Utd.	
사우스햄튼	1 - 1	첼시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마인츠05	2	- 1	묀헨글라트바흐	프랑크푸르트	2 - 1	바이에른뮌헨
슈투트가르트	1	- 0	쾰른	우니온베를린	1 - 0	프라이부르크
도르트문트	4	- 0	샬케04			

•세리에A 경기결과

제노아	2	- 2	베로나	라치오	1 - 0	삼프도리아
사수올로	1	- 1	볼로냐			

•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

레반테	2	- 0	AT마드리드	엘체	1 - 0	에이바르
레알마드리드	1	- 0	바야돌리드	발렌시아	2 - 0	셀타비고

경기 예고

프로농구 〈22일〉

•2020-2021 KB국민은행 Liiv M WKBL

하나원큐	〈부천실내〉	신한은행

오후7시, KBSN스포츠, IB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22일〉

축구 ●제 57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통영,오전10시30분)

테니스 ●2021 김천 KMHTF오픈 춘계 전국 주니어 테니스대회(김천종합스포츠타운)

아이스하키 ●2020코리아 아이스하키리그(목동아이스링크,오후2시)
•안양한라-하이원